

2023학년도 모의논술

논술시험(인문계)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전면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논술시험 (인문계)

[문제 1] <제시문1> ~ <제시문4>는 인간의 행위가 무엇에 기초하는지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1>

감정은 인간의 본능과 관계되는 세계이다. 인간은 누구나 감정을 경험하고 감정이 이성 못지않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철학은 감정의 세계를 무시하고 그것의 억제만을 강조했다. 인간은 감정 없이 살 수 없으며 감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조정한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며, 나아가서 사실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옳은 일이라면 마음의 평온을 찾고 잘못된 일이라면 마음의 동요를 느낀다. 마치 이성의 옳음과 잘못까지 판정하는 심판 노릇을 하는 것이다.

철학자는 오랫동안 이성은 인간적인 것이고 감성은 동물적인 것으로 단정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모를 지기 동물적 충동에서 벗어나서 이성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이 동물의 연속에 지나지 않음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에게 동물적이지 않은 인간적 특성이 따로 있다고 믿음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것은 인간의 유아독존적인 자만심에서 나온 것이지만 철학자에게는 마이동풍이었고 이 흐름은 오래도록 유지되었다. 감정은 생물의 자기 생존을 위한 중요한 기제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생존을 위해 유리한 것이고 동요가 있으면 무엇인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감정이 움직였다는 것은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것이다.

인간도 동물과 다름없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욕구가 발동하면 마음 속에 긴장을 일으킨다. 긴장을 일으켰다는 신호가 감정인 것이다. 그 욕구가 충족되면 감정은 진정된다. 충족되지 않으면 충족될 때까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낀다. 감정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하다. 욕구의 대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도 있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에 배치되는 어떤 사실을 발견하면 그것 때문에 긴장한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납득할 만한 결말을 찾아야만 감정의 평화를 얻는다. 감정은 기분 좋은 상태와 기분 나쁜 상태로 대별된다. 기분이 좋으면 일이 잘되고 있는 징조이고 기분이 나쁘면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징조이다. 물론 감정의 표현은 다양하고 색조는 미묘하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감정의 다양성은 더욱 복잡하고 세련되게 되었다. 이것이 인간적 특색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감정의 요구는 생존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기본적 본질은 동물과 다를 것이 없고 욕구충족과 밀접히 관련된다. 동물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다움마저 상실한다. 동물적 욕구에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무력하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은 동물적 구속을 벗어나지 못한다. 동물적 속성을 뺀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인간은 이성도 중요하지만 감성도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성보다도 감성이 더욱 정직하고 정확하다. 사람이 감정에 복받치면 이성을 잃고 어떤 일을 저지르지 모른다. 감정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감정이 안정되어야 이성도 작용할 수가 있다. 현대과학도 감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감성이란 기본적으로 감각기관에 기초를 두는 심리적 작용의 하나이다. 감각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능력인 이성과 구별되고, 일상생활에서 인정, 향수, 애착, 정감, 동정심, 미의식이나 상상력 등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감동, 감격, 공감 같은 것을 제외하면 인간에게서 분발심이나 자기혁신을 기대할 수가 없다. 철학자인 흄도 감성에는 이성의 통제가 불가능한 독자적인 윤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감정이 윤리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다. 칸트는 실천이성을 동기로 삼지 않는 판단은 모두 의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흄은 이성이란 열정이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이며, 이성은 그 감정이 열을 상실하면 비로소 움직인다고 주장한 것이다.

<제시문2>

동물은 다른 구성원이 은혜를 갚으면 우호적으로 활아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를 위협하기 위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을 통해 반응하지만, 인간은 승인하거나 비난하는 윤리적 판단을 통해 반응한다. 이런 판단은 사실상 우호적 활아움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세련되게 가다듬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는 분명하다. 으르렁거림이라든가 활아움의 경우 그 행위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지만, 윤리적 판단의 경우에는 자신의 판단을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논쟁하며 “왜 그런 일을 했지?”

논술시험 (인문계)

라고 물을 수 있다면 단순한 으르렁거리거나 활아춤에서 윤리적 판단으로 진화한 것이다.

개는 어떤 사람을 보면 으르렁거리다가도 다른 사람을 보고는 꼬리를 살랑거릴 수 있으며, 이런 차이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인간은 동일한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윤리적 판단을 내렸을 경우, 그 이유를 대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렵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은 다른 종족 구성원이 모아둔 열매를 가져가도 되지만 정작 자신의 것은 아무도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할 경우, 왜 두 경우가 달라야 하는지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적절한 이유를 대야 한다. 이렇게 이유를 대라고 요구하는 것은 집단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이유는 공정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달리 말해 자신이 사적이고 특정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타인들과 공통되는 관점을 선택해야 한다.

공평무사성, 즉, 자신의 행동에 의해 영향받을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태도를 요구한다는 점은 자기 이익에 대한 뻔뻔스러운 호소로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가령 타인이 내게서 열매를 가져가면 손해가 되지만 내가 타인으로부터 열매를 가져오면 이익이 되므로 내가 타인으로부터 열매를 가져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집단 전체의 동의를 얻고 싶다면 나의 입장이 최대한 공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용맹한 전사이므로 더 많은 열매를 가져갈 권한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정당화는 나처럼 용맹한 전사는 누구든 나만큼의 열매를 가져야 함을 함축한다는 의미에서 공정하다. 역으로 그러한 정당화는 나보다 싸움을 못할 경우에는 더 적은 양의 열매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처럼 사회 전체에 비추어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이념에 내재된 공평무사함이라는 요소를 원리로 확장함으로써 윤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 원리는 결국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어떤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이 원리는 내가 윤리적 판단을 내릴 경우 오직 공정한 관점에서 결정하기를 요구한다. 달리 말해, 나의 결정을 통해 영향받을 모두의 삶을 상상해본 다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제시문3>

인간은 지속해서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 인간 이외의 동물은 옳다, 옳지 않다,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등을 논리적으로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못한다. 동물도 감각적으로 먹이가 있는 곳을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인간 이외의 동물은 왜 먹이가 그곳에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하지는 못한다. 인간은 그곳에 물이 있어 나무가 자란다거나 아니면 땅이 비옥하다거나, 햇빛이 잘 든다거나 등 먹이가 있는데 필요한 여러 조건을 생각하여 그곳에 먹이가 있는 이유를 추론해낼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먹이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도 있다. 인류 사회에서 이성은 여타의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의 특징적 활동인 철학, 과학, 언어학, 수학, 예술 등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다. 결정적으로, 이성은 자기 인식이나 신념, 기존의 제도나 전통을 주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인간 이성은 자유와 자결권의 진정한 밑바탕을 형성한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단순히 자율적으로 도덕법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설정한 행위 원칙이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합치되게끔 이끌어가는 의지의 힘을 가졌다.

합리적 소비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소비자가 합당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 대안을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최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올바른 것으로 보고, 실용성에 초점을 둔 이성적 소비가 곧 합리적 소비의 핵심이라 설명한다. 이는 어떤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만을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합리성이라고 여긴다는 점에서 ‘도구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플라톤은 최선이라고 여기는 원칙에 거슬러 행동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오직 무지만이 비합리적 행동을 설명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어떤 학자는 이러한 주장을 인용하여 도구주의적 합리성의 원칙을 ‘플라톤 원칙’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도구주의적 입장에서는 인간의 소망은 외재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주어진 소망체계 내에서 행위자의 소망-신념-행위 간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수단적 합리성이 중요하다. 우리는 여러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 그 대안들이 자신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생각해보며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효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근거해서 실행가능한 집합의 범위 안에서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다.

논술시험 (인문계)

희소성의 원칙이 필연인 사회에서 정의 판단이란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를 문제와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개인의 소망 자체가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소망의 내용이나 그 형성 과정에 대해 목적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가치체계가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중심에 이성이 있다. 이성은 시비, 선악, 바른 일과 간사한 일을 판별하여 인간 스스로 자율적,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인간의 이성적 사고능력은 자유로운 행동 및 사고와 연결되어 있다.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곧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행동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율적 존재이며,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능력 또한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 소망은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재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며, 적절한 경험이나 증거에 의한 이해로부터 생성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합리적 소비는 결국 개인의 선호에 근거한 일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시문4>

우리의 도덕적 견해는 이성에 기초하는 것일까? 옳고 그름이라는 윤리적 가치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일까? 그리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일까?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에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온다. 칼라시아족은 죽은 조상의 시신을 습관적으로 먹어 치우며 그것이 옳은 일이라 믿었다. 반면에 그리스 아 사람은 시신을 화장하였으며 그것이 시체를 처리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체를 먹어야 하는가 아니면 불태워야 하는가? 이처럼 각 문화권이 서로 다른 도덕적 규범을 가지고 있을 경우 어느 하나가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문화권은 그 나름의 도덕적 규범을 가지며 그 중 어느 하나만이 객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도덕의 객관성과 불변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덕적 견해들이 우리의 감정에 기초해있으며,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객관적인’ 옳음과 그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고 할 때, 나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에 대한 나의 감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히틀러와 그의 심복들이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것은 하나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것이 나쁘다고 할 때 결코 사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 평가는 객관적 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고,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평가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이 행한 것이 나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자가 나쁘다는 주장 역시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모든 도덕적 판단에 똑같이 적용된다.

결국 도덕은 어떤 사물이나 행동이 선하고 어떤 사물이나 행동이 악한가에 관한 논의가 아니다. 도덕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거나, 어떤 견해에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 판단을 내리든 간에 실제로는 오직 개인적 감정을 나타내고 있을 따름이며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다. 우리는 어떤 쟁점에 대해 도덕적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동성애자의 권리를 인정하거나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그 선택은 진리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을 따름이다.

논술시험 (인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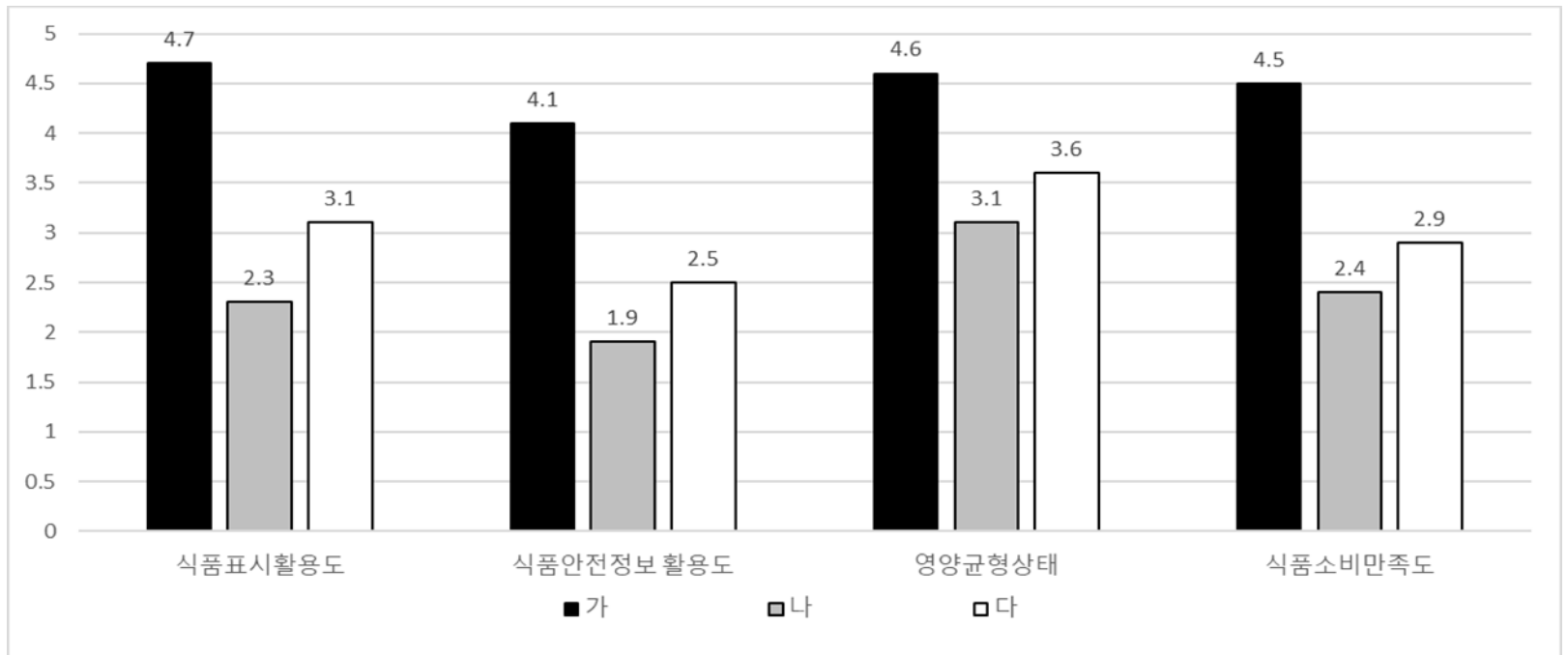
[문제 2] 아래 <자료1>과 <자료2>는 각각 A국의 축산시장변화와 B국의 도시별 식품소비에 관한 지표를 보여준다. <자료1>과 <자료2>가 각각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설명하시오. (40점)

<자료1> A국의 축산시장 변화추이

연도	돼지고기 국내 생산량 (M/T)	돼지고기 수입량 (M/T)	국내 돼지전염병 발생 건수	주요 수입국 돼지전염병 발생 건수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 (M/T)
2017	954,900	428,000	0	0	943,100
2018	955,200	310,000	0	2	891,700
2019	955,100	280,000	0	5	789,600
2020	954,800	430,000	0	0	942,800

주1) 전 기간 동안 A국의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주2) 돼지전염병은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100여 년간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왔음.
 주3) M/T은 미터법상의 1톤(1,000kg)을 의미함.

<자료2> B국의 도시별 식품소비 지표



<자료설명>

- 식품표시활용도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영양정보,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식품 구매 시 활용하는 수준을 의미함.
- 식품안전정보 활용도는 식품 구매 시 정부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 포털사이트를 활용하는 수준을 의미함.
- 영양균형상태는 평소 섭취하는 식단에 포함된 영양소의 균형잡힌 수준이 우수한 정도를 의미함.
- 식품소비만족도는 식품 구매 후 자신이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였다고 판단하는 정도를 의미함.
- 모든 항목은 5점 척도(1=매우 낮음, 5=매우 높음)로 측정하였음.
- 세 도시(가, 나, 다)의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문제 3] 한 지방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하려고 한다. 이 일을 맡은 부서의 한 팀은 원자력발전의 중요성, 발전소를 이 지역에 건설함으로써 얻게 될 이득, 시설의 안전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메시지로 구성된 광고를 제안했다. 다른 팀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하여 최신 전자제품을 즐기는 가족의 모습과 멋진 전기자동차를 타고 신나게 여행을 즐기고 있는 젊은 연인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은 광고를 제안했다. 이 두 가지 중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광고를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